

Brief

2015. 06. 25

집필자

이강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
한선미 전북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

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삶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

+	+	+	+	+	+	+	+
+	+	+	+	+	+	+	+
+	+	+	+	+	+	+	+
+	+	+	+	+	+	+	+
+	+	+	+	+	+	+	+
+	+	+	+	+	+	+	+
+	+	+	+	+	+	+	+
+	+	+	+	+	+	+	+

CONTENTS

1. 들어가며
2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현황
3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소득·소비,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
4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
5. 결론 및 정책제언



C O N T E N T S

jthink 정책브리프

정책브리프 2015년 6월 25일 vol.1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발전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궤로 1696

TEL : 063)280-7100 FAX : 063)286-9206

※전북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※정책브리프는 홈페이지 (www.jthink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삶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

1. 들어가며	04
2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현황	05
3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소득·소비,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	07
4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	13
5. 결론 및 정책제언	14

※본 정책브리프는 2014년 전라북도사회조사의 중장년과 관련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임



1. 들어가며

- 중장년층(40~60세미만)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이며 인구학적으로 관심 대상
 - 현재 중장년층은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구성되어 인구학적으로 관심 대상
- 중장년층에서 촉발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·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
 - 전라북도 인구의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으로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문제와 더불어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와 중기적으로 다음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

2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현황

- 전북 중장년층 인구는 596,178명이며(전북인구의 31.9%) 2014년기준 2,854명이 순유입¹⁾ 됨
- '2014년 전북 사회조사'에 나타난 중장년층의 특징
 - 학력은 고졸이 43.1%, 대졸 이상이 36.3%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(201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와 비교)
 - 세대구분으로 볼 때 2세대의 비중이 60.8%를 차지해 타 연령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1인가구의 비중은 8.9%로 낮은 편임
 - 가계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50%이상이며 100만원 미만도 10%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
 - 직업은 관리전문가의 비중(19%)이 타 연령층보다 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24.0%로 높음

3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소득·소비,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

- 소득대비 생활비 지출이 높아 저축 여력이 적음
 - 월평균 노동임금을 보면 200만원 미만이 47.8%로(도 전체 56.3%) 나타남
 - 월평균 저축액을 보면 저축없음이 26.5%에 달하고 있으며 50만원 미만도 34.5%에 달함
 -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높아져 월 평균 노동임금 100만원 미만이 가계소득의 6.5%를 지출하는 반면 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은 가계소득의 23.0%를 지출하여 교육비의 소득과의 상관도²⁾가 매우 높음(0.997)
- 저축여력이 부족하나 소득에 대한 만족도나 가구 소비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음
 - '소득에 대해 약간 부족하지만 절약하며 살아감' 41.1%, '그런대로 적당한 편' 35.5%로 대부분이 소득에 대해 중립적이며 10.7% 정도만 큰 불만을 표시함

- 가계부채의 주요인은 주택자금 마련이며, 부채규모는 5천만원 이상(22.6%)이 가장 많음
 -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 평균과 유사(57.0%)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마련자금을 조달(38.4%)이 가장 많고, 다음으로 투자유동자금 부족(21.2%), 여유자금 부족(18.5%) 순으로 나타남
 - 부채 규모를 보면 5천만원 이상이 22.6%로 가장 많고 2012년과 비교하면 여유자금 및 교육비 총당 비중이 늘어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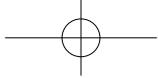
4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

- 노후준비는 도민전체 평균에 비해 높으나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노후준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
 - 중장년층의 69.5%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도민 전체평균(52.5%)보다는 높았으며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(49.8%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모든 소득구간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에서도 국민연금 비중이 50%에 달하여 실제 노후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

5. 결론 및 정책제언

- 중장년층의 소득·소비, 삶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축여력이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중장년층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금수령액이 노년 최저생활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.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후준비는 부족함
 -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생활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
- 중장년층 은퇴에 대비한 지원제도 강화 필요
 - 단기적으로는 은퇴 후 삶의 설계를 지원하는 '인생 재설계(가칭)' 컨설팅 사업 도입 필요
 - 중장기적으로 중장년의 재취업서비스 강화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 정책 지속적 추진
-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
 -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발굴을 도 전체의 초고령사회로의 전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초고령화 사회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부서 설치 필요

- 1) 순이동 = 총전입-총전출. 순유입은 순이동이 (+) 값을 의미
- 2) 소득이 구간소득이므로 구간소득의 중간값을(700만원이상은 750만원으로 산정) 활용하여 계산



04

전라북도 중장년층 삶의 현재와 미래 진단

- 삶의 만족도와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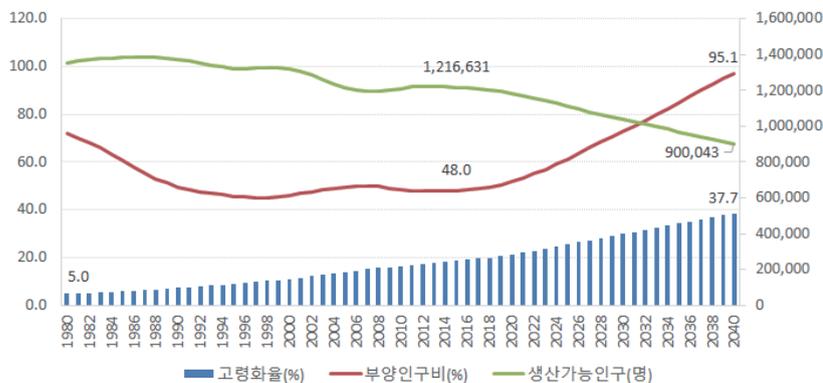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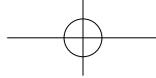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1. 들어가며

□ 중장년층(40~60세 미만)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이며 인구학적 관심 대상

- 중장년층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연령층인 동시에 연령별 인구가 많은 계층
 - 한 사회에서 중장년층은 사회·경제를 이끌어가는 집단으로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인식도는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
 - 현재 중장년층은 베이비붐 세대(1955년~1963년 출생)와 2차 베이비붐 세대(1968년~1974년 출생)를 포함하고 있어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임
 - 전북의 중장년층은 596,178명(40~49세 303,136명, 50~59세 293,042명)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(1,871,560명)의 31.9%를 차지함
-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생활 및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집단이므로 이들의 생활, 의식 등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함
 -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못지않게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의식이 향후 소비, 저축, 복지 분야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
 - 중장년층에서 촉발될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
- 전북의 중장년층이 급격하게 고령층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라북도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
 - 중장년층,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으로 흡수되어 감에 따라 전북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이 클 것임
- 전라북도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생산을 담당할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이며 이에 따라 부양인구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전라북도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초고령사회³⁾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
 -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9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(통계청 추계인구 기준)
 - 부양인구비⁴⁾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95.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

3)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%이상~14%미만이면 고령화사회(aging society), 14%이상~20%미만이면 고령사회(aged society), 20%이상이면 초고령사회(super-aged society)로 분류(통계청 분류)

4)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인구비. 즉, 부양인구비 = ((15세 미만 인구+65세 이상 인구)



[그림 1-1] 전라북도 인구관련 지표

□ 중장년층의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도를 분석하여 경제·사회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필요

○전북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지는 원인은 인구비중이 큰 중장년층이 고령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이므로 중장년층의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정도를 분석하여 향후 경제,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비 필요

- 현재의 저축, 소비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미래 수요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의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파악할 필요 있음
- 노후준비 정도에 따라 향후 복지재정수요 및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

○인구변화에 관련된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므로 중장년층의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여 선제적 정책 마련 필요

- 인구구조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북이 중장년층의 미래 준비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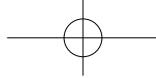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2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현황

□ 전북의 중장년층은 순유입되고 있으며 전국평균에 비해 50~54세의 취업자 비중이 높음

○전북의 중장년층은 순유입 되고 있음(2013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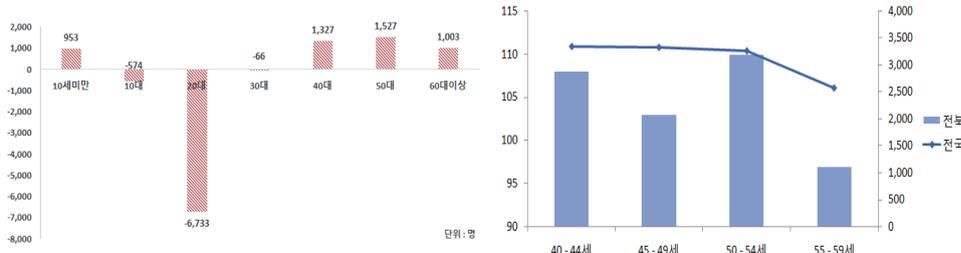
- 전라북도의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장년층은 증가하는 추세임
- 연령별 순이동을 보면 50대(1,469명), 40대(1,299명), 60대이상(976명), 10세미만(901명)순으로 순유입을 보임

05



06

○전북의 중장년층 취업자 수를 5세 단위로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50~54세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반면 45~49세의 취업자 비중이 낮음⁵⁾
 -전국은 40~44세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나 전북은 50~54세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45~49세가 적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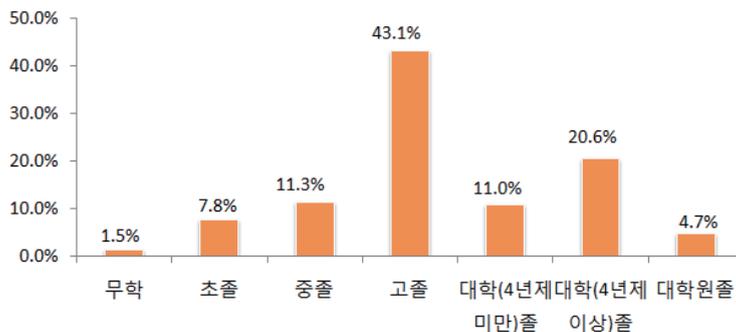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-1] 연령계층별 인구이동

[그림 2-2] 전북과 전국의 중장년 취업자수

□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⁶⁾에 나타난 전라북도 중장년층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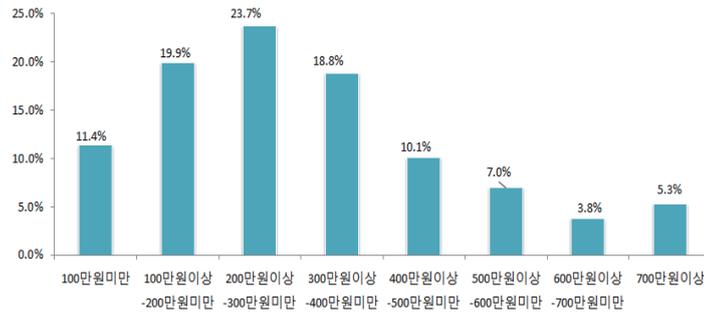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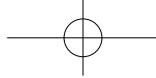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- '2014년 전북 사회조사'에 의하면 중장년층의 84% 정도는 시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 평균에 비해 시 지역 거주 비율이 높음
- 중장년층의 학력은 고졸이 43.1%, 대졸 이상이 36.3%로 중장년층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('201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' 와 비교)
- 세대구분으로 볼 때 중장년층은 2세대의 비중이 60.8%를 차지하여 타 연령그룹에 비해 2세대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1인가구의 비중이 8.9%로 낮은 편임
- 중장년층의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(30.4%), 200만원~400만원 미만(42.5%), 400만원 이상(26.2%)순으로 나타남
- 중장년층의 직업은 관리전문가의 비중(19%)이 타 연령층보다 높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도 24.0%로 높은 편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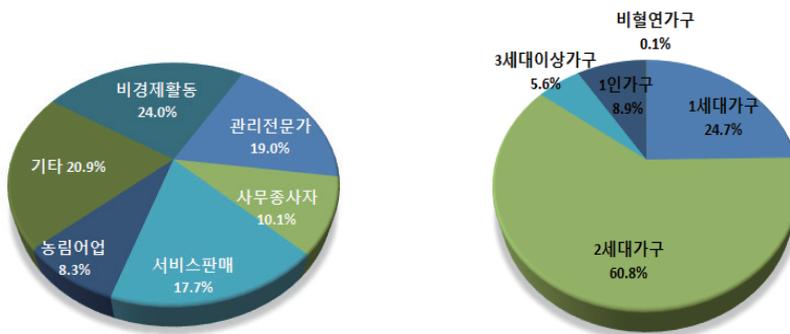
[그림 2-3] 학력 수준

5)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연령별 지역자료는 제한적이어서 취업자 수를 제외하면 거의 파악할 수 없어 사회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

6) 전라북도 내 250개 조사구의 5,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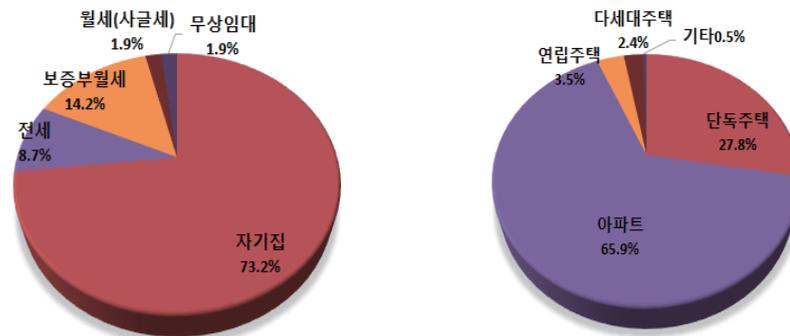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-4] 가계소득



[그림 2-5] 직업 종사 분야

[그림 2-6] 세대 구분



[그림 2-7] 점유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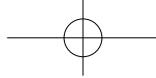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[그림 2-8] 거주 종류

3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소득·소비,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

□ 중장년층은 소득대비 생활비 지출이 높아 저축 여력이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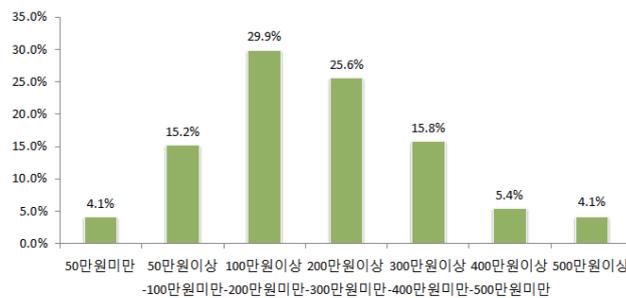
- 중장년층 노동임금은 1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함
 - 월평균 노동임금을 보면 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(31.9%)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(26.6%), 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(14.8%) 순임

0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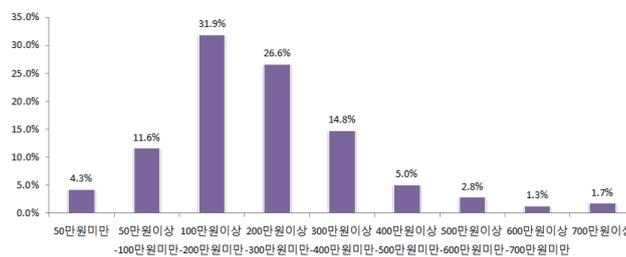


0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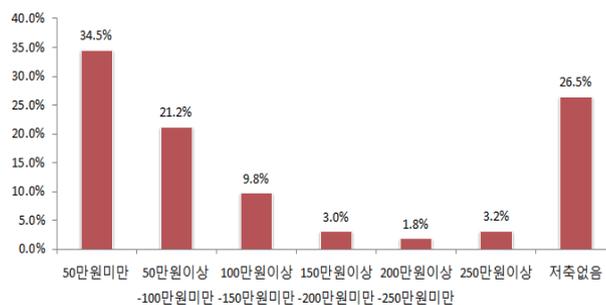
-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(29.9%)이 가장 보편적임
-100만원 미만(19.3%), 1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(55.5%), 300만원 이상(25.3%)으로 나타남
- 중장년층의 저축여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
-월평균 저축액을 보면 '저축없음'이 26.5%에 달하고 있으며 50만원 미만도 34.5%에 달해 중장년층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가구소득별 월평균 지출금액 중 교육비가 소득과의 상관도가 가장 높음
-월평균 지출금액을 보면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14.7만원을 지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비(20.1%), 식료품비(20.0%), 교통비(12.4%), 주거비(11.0%), 광열수도비(7.8%), 통신비(7.5%), 기타(21.1%) 순이었음
-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높아져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 가계소득의 6.5%를 지출하는 반면 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은 가계소득의 23.0%를 지출하여 교육비의 소득과의 상관도가 매우 높음(0.997)



[그림 3-1]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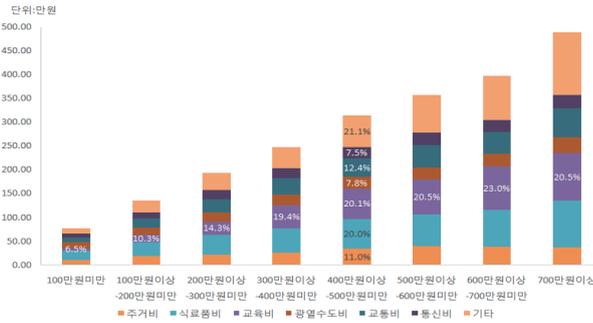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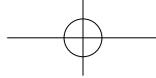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

[그림 3-2] 월평균 노동임금



[그림 3-3] 월평균 저축액

7) 소득이 구간소득이므로 구간소득의 중간값(700만원 이상은 750만원으로 산정) 활용하여 계산



[그림 3-4] 월평균 지출액

○ 중장년층의 소득구간별 저축금액을 보면 '저축없음'의 비중이 높고 저축여력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음

- 소득구간별 저축정도를 보면 200만원 미만 소득층은 대부분(87.8% 이상) 저축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으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- 2012년과 비교하면 '저축없음'의 비중이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늘어나 저축여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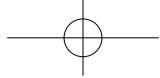
[표 3-1] 중장년층의 소득구간별 저축정도

소득구간 저축액	50만원 미만		저축없음	
	2014	2012	2014	2012
50만원 미만	17.0%	25.5%	83.0%	74.5%
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	32.0%	29.6%	63.6%	67.6%
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	43.7%	53.8%	44.1%	35.8%
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	47.4%	53.7%	21.9%	17.9%
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	39.4%	41.3%	18.9%	7.9%
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	25.4%	27.4%	6.5%	7.4%
5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	10.6%	18.3%	1.4%	3.1%
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	11.1%	8.8%	2.7%	1.6%
700만원 이상	5.3%	9.8%	4.0%	4.0%

○ 저축 부족은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의 저축 여력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

- 중장년층에 비해 베이비부머의 저축없음 비중이 각 소득구간별로 높아 중장년층 중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부족 문제가 더 심각함
-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나 가구소비 만족도는 크게 떨어 지지는 않음

09



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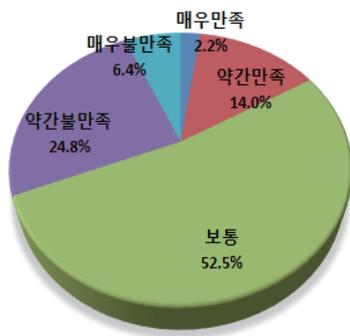
○ 중장년층은 소득에 대해 그런대로 적당하거나 부족하지만 절약하며 살아감

- 중장년층은 소득에 대해 약간 부족하지만 절약하며 살아감(41.1%), 그런대로 적당한 편(35.5%)으로 대부분이 소득에 대해 중립적이며 10.7% 정도만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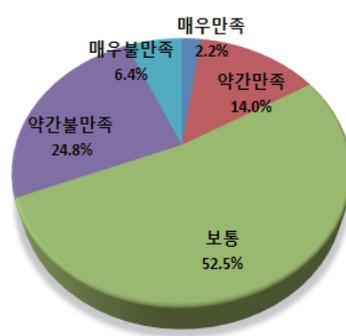
○ 소득에 대한 불만족 보다는 소비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

- 가구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(약간불만족+매우불만족)이 31.2%에 달하여 만족하는 비율(16.2%)보다 높게 나타남

- 중장년층의 가계부채는 주택자금 마련이 가장 큰 이유이며, 5천만원 이상 비율이 22.6%에 달함



[그림 3-5] 소득에 대한 만족도



[그림 3-6] 월평균 가구소비 만족도

○ 중장년층 중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민 전체 평균과 유사함

- 중장년층 중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.4%로 전체 연령층의 응답비율인 57.0%와 유사함

○ 중장년층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마련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(38.4%)이며 투자유동자금 부족(21.2%), 여유자금 부족(18.5%) 순

- 도민 전체의 가계부채 중 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비중은 41.3%로 중장년층의 주택마련자금 부담이 적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마련 자금 부채 비중은 낮음(32.7%)

○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중장년층의 부채 규모를 보면 5천만원 이상(22.6%)이 가장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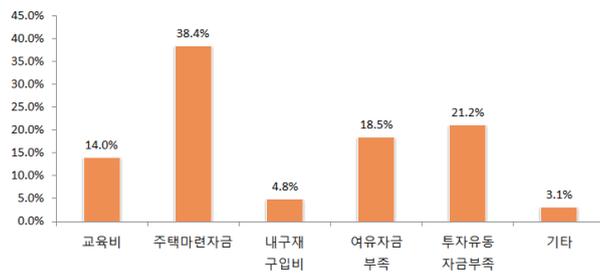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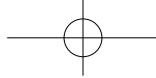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- 최근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,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여유자금의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중장년층이 늘어날 가능성 높음

○ 2014년 중장년층의 가계부채를 2012년과 비교한 결과 여유자금 및 교육비를 충당하는데 빚을 지고 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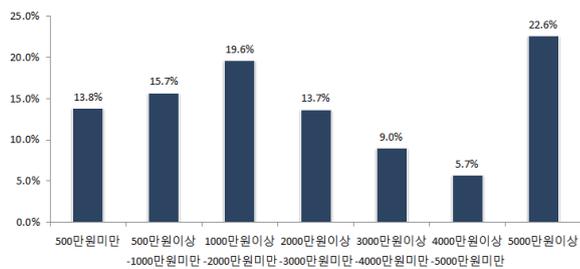
- 여유자금조달, 교육비 등이 증가하고 내구재구입비, 투자유동자금부족 등은 감소하여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늘렸으며 내구재구입과 투자부분은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임

○ 소득별 부채이유를 보면 100만원 미만은 여유자금 부족(41.1%), 고소득자(700만원 이상)의 경우에는 투자 유동자금의 부족(44.2%)으로 인해 주로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주택자금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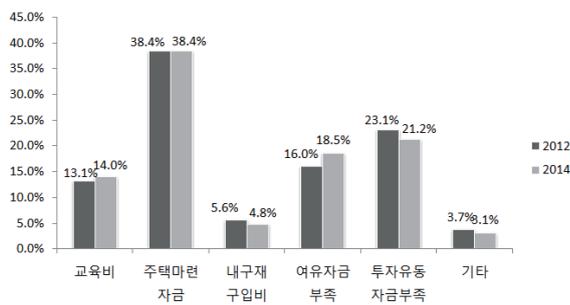
○ 부채 이유 중 여유자금부족(18.5%)으로 인한 부채는 미래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



[그림 3-7] 가계부채 이유



[그림 3-8] 부채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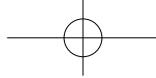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

[그림 3-9] 부채이유 비교(14년과 12년)

[표 3-2] 소득별 부채이유

	교육비	주택마련 자금	내구재 구입비	여유자금 부족	투자유동 자금부족	기타
전체	14.0%	38.4%	4.8%	18.5%	21.2%	3.1%
100만원 미만	9.4%	25.9%	3.1%	41.1%	12.8%	7.6%
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	11.4%	29.8%	5.1%	28.1%	21.1%	4.4%
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	13.9%	45.0%	3.4%	17.0%	18.0%	2.7%
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	15.5%	40.7%	5.7%	15.5%	21.2%	1.4%
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	15.8%	42.0%	6.8%	7.0%	25.9%	2.6%
5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	21.5%	43.3%	6.0%	13.1%	16.0%	0.0%
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	19.7%	37.3%	10.6%	5.9%	23.9%	2.7%
700만원 이상	6.7%	36.7%	0.0%	6.2%	44.2%	6.2%

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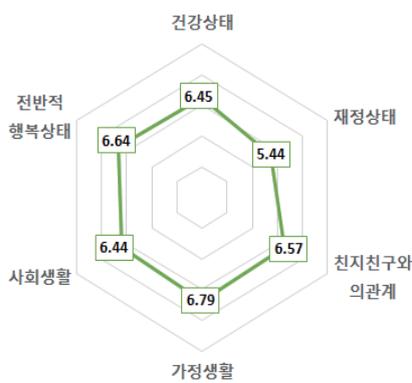


12

□ 중장년층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짐

○ 2014년 전북도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6.52점⁸⁾

- 항목별로 보면 가정생활 만족도(6.69점)가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 친지, 친구와의 관계(6.53점), 건강상태(6.43점), 사회생활(6.25점), 재정상태(5.23점) 순으로 나타남
- 2013년 전북 사회조사 대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0.18p 감소하였고, 건강상태(+0.05p)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감소



[그림 3-10] 삶에 대한 만족도(중장년층)



[그림 3-11] 삶에 대한 만족도(도민 전체)

-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한 결과 100만원 미만 계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, 1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 사이에는 소득구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400만원 이상 구간에서도 소득구간 간 (특히 전반적 행복상태에서)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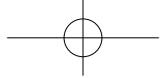
[표 3-3] 소득별 삶에 대한 만족도

	건강상태	재정상태	친지친구와의 관계	가정생활	사회생활	전반적 행복상태
전체	6.45	5.44	6.57	6.79	6.44	6.64
100만원 미만	4.95	3.60	4.96	4.88	4.61	4.88
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	6.11	4.64	6.17	5.92	5.84	5.98
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	6.49	5.21	6.52	6.72	6.46	6.60
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	6.55	5.45	6.68	7.02	6.59	6.73
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	7.03	6.13	7.15	7.49	7.17	7.36
5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	7.12	6.56	7.32	7.65	7.38	7.48
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	6.95	6.71	7.18	7.49	7.17	7.27
700만원 이상	7.35	7.41	7.84	8.03	7.63	7.81

- 삶에 대한 만족도 가운데 소득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분야는 재정상태이며 가장 낮은 것은 건강상태로 건강은 상대적으로 가정생활, 사회생활, 친지·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소득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

8) 삶에 대한 만족도의 척도는 0점~10점임. 0점은 가장 행복하지 않다. 10점은 가장 행복하다. 그리고 보통을 5점으로 측정

연도	지역	삶에 대한 만족도
2014	서울	6.92 / 10점
2014	대전	5.58 / 10점
2014	울산	5.6 / 10점
2014	충남	5.93 / 10점



4.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

□ 중장년층 노후준비는 도 평균에 비해 높지만, 국민연금 비중이 높아 실질적 노후준비도는 부족한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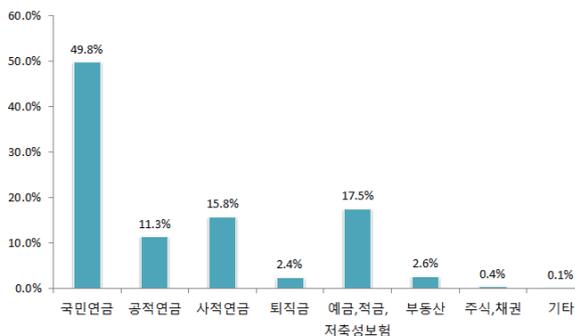
○도민의 52.5%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, 준비방법은 국민연금(49.3%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—준비방법은 국민연금(49.3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예금·적금·저축성보험(18.3%), 사적연금(13.5%), 공적연금(12.3%), 부동산(3.7%), 퇴직금(2.2%), 기타(0.5%), 주식·채권(0.3%)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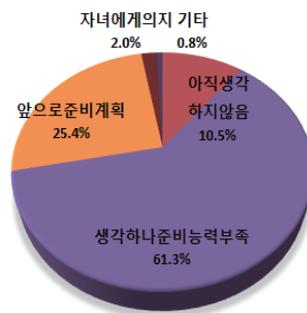
○중장년층의 69.5%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도 평균보다는 높았으며 준비방법은 국민연금(49.8%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—노후준비방법은 국민연금(49.8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예금·적금·저축성보험(17.5%), 사적연금(15.8%), 공적연금(11.3%), 부동산(2.6%), 퇴직금(2.4%), 주식·채권(0.4%), 기타(0.1%) 순임

—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(30.5%)고 응답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계획을 보면 '생각을 하고 있으나 준비능력이 부족하다'고 응답한 비율이 61.3%로 나타나, 단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



[그림 4-1]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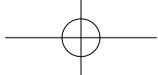
[그림 4-2]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계획

○중장년층 가운데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아짐

—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71.3%가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며 700만원 이상은 100%가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함

○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

—모든 소득구간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에서도 국민연금 비중이 50%에 달하여 실제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



[표 4-1] 소득별 노후 준비방법

	국민연금	공적연금	사적연금	퇴직금	예금, 적금, 저축성보험	부동산
50만원 미만	68.5%	17.5%	-	-	-	14.0%
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	48.9%	-	24.5%	-	17.7%	8.9%
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	65.0%	1.0%	11.7%	-	19.9%	2.5%
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	56.3%	7.2%	11.8%	2.0%	17.6%	5.1%
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	51.4%	10.9%	16.7%	4.0%	14.1%	2.9%
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	49.6%	28.3%	6.7%	1.7%	9.7%	4.0%
5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	35.0%	28.4%	17.6%	7.3%	8.0%	3.7%
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	46.8%	23.9%	9.0%	5.2%	11.1%	4.1%
700만원 이상	46.4%	12.4%	13.3%	3.1%	22.1%	2.7%

○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노후생활비(2012년)에서 최소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필요

- 부부와 개인 단위의 주관적 최소·적정 노후생활비를 조사하였으며 부부단위의 최소생활비⁹⁾는 136만 9천원, 개인단위의 최소생활비는 83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고, 부부단위의 적정생활비는 192만 9천원, 개인단위의 적정생활비는 119만 3천원으로 나타남
- 현재 국민연금은 300만원 소득월평균액을 가진 근로자가 30년을 납입하면 779,990원을 수령하며 이는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함

○중장년층의 30% 정도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70% 정도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후소득이 최소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많을 것으로 보임

- 모든 소득구간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고 중장년층의 74.4%가 3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후에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지내는 중장년층 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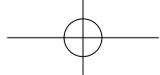
9) 주관적 최소·적정 노후생활비(부부, 개인)를 조사함.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고,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(자료: 송현주 외 4인, 국민연금연구원, 우리나라 중·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-제4차(2012년도)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-, 2013)

5. 결론 및 정책제언

□ 중장년층의 소득·소비, 삶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양호

○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0.1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항목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

- 소비에 대해서는 불만족(31.2%) 비율이 높았으나 소득에 대해 약간 부족하지만 절약하며 살아감(41.1%), 그런대로 적당한 편(35.5%)로 중장년층 대부분이 소득에 대해 적극적 불만을 가지지는 않음
-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재정상태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재정상태보다 1.2점 높아 소득에 대한 적극적 불만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양호한 편임



□ 중장년층이 저축여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○ 전북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장년층의 근로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50%에 달하여 저축여력이 낮음을 볼 수 있음

- 중장년층이 가계의 소비수요가 큰 그룹임을 고려하면 중장년층이 관찮은 일자리에 일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교육, 미래저축, 그리고 그들의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
- 저축여력이 낮아 중장년층 60%가 저축을 하지 않거나 5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장년층의 노후가 불확실할 것이며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
-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전북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찮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

□ 전북 중장년층 노후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책 마련 필요

○ 전북 중장년층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.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후준비는 미약함

- 중장년층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을 가능성은 높으나 노후준비가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국민연금 수령액에 의존한다면 연금수령액이 노년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
- 실질적인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복지수혜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

□ 중장년층 은퇴에 대비한 지원제도 강화 필요

○ 단기적으로 중장년의 은퇴에 대비한 정책 마련 필요

- 이들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'인생 재설계(가칭)'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필요

○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서비스 강화와 같은 일자리 정책 지속적 추진

- 중기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강화와 일자리 연계사업과 같이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터전 마련할 필요
- 현재,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추진하는 중장년 일자리 연계사업의 확대와 센터기능의 강화,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함

□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더불어 전담부서 설치 필요

○ 베이비붐 세대(중장년층)에 대한 정책발굴을 도 전체의 고령화사회로의 전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고령화사회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부서 설치 필요

- 베이비붐 세대(중장년층)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노년층에 대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가세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속화는 전북이 초고령사회로의 전이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
- 초고령사회로의 전이는 인구구조 뿐 아니라 경제·사회구조를 바꿀 것이므로 개별정책으로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 부처간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
-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정책을 기획한 실무부서가 부재하여 도와 시군에 초고령사회 대책 위원회 등과 실무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를 고려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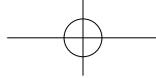
〈참고자료〉

송현주 외 4인, 국민연금연구원, 우리나라 중·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-제4차(2012년도)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-, 2013)

전라북도, 2014 전라북도 사회조사
전라북도, 2012 전라북도 사회조사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각년호
통계청, 인구이동통계, 각년호

15

Jeonbuk Development Institute



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삶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

이강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
한선미 전북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



전북발전연구원

560-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(효자동3가 1052-1)

Tel.063-280-7100 Fax.063-286-9206

www.jthink.kr

